

정도령이 된 정성공*

- 「연평초령의모도(延平髻齡依母圖)」를 중심으로

정 응 수**

(e-mail : chunges@nsu.ac.kr)

<목 차>

1. 서론
2. 「연평초령의모도」에 관해
3. 정성공과 정도령
4. 결론

キーワード：「延平髻齡依母圖(Yeonpyeongchoryeonguimodo)」, 鄭成功(Zhèng, Chéng-Gōng), 鄭道令(Jeongdoryeong), 『鄭鑑錄(Jeonggamrok)』, 海上真人(the naval True Man)

1. 서론

이 글은 「연평초령의모도(延平髻齡依母圖)」를 매개로 해서 정도령과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의 관련성을 밝힌 글이다. 정도령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조선왕조를 타도하고 계룡산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구세주로서 『정감록』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이다. 정성공은 명말 청초 반청복명운동을 벌인 사람이다. ‘연평’은 정성공의 작호이고, 초(髻)는 머리카락을 뒤로 늘어뜨려 묶거나 목덜미 근처에서 자른 옛날 어린 아이의 머리 모양을 가리킨다. 여기서 초령이 7, 8세가량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뜻이 되었다. 따라서 「연평초령의모도」란 ‘정성공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의지해 살던 그림’이란 정도의

* 이 논문은 2015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학(한일비교문학·비교문화).

뜻이 된다.

정성공은 1624년 7월 14일 나가사키(長崎)의 히라도(平戶)에서 중국인 아버지 정지룡(鄭芝竜)과 일본인 어머니 다가와(田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정지룡은 해적 겸 무역상으로 명과 일본을 왕래하며 히라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정성공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당시 나가사키에 살던 중국인들의 리더인 안사제(顏思齊)와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나가사키를 탈출하여 타이완으로 건너갔다¹⁾. 이후 1628년 9월 명에 귀순할 때까지 타이완 해협을 무대로 한 해적의 거두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정성공은 7살이 될 때까지 히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연평초령의모도」는 바로 이 무렵의 정성공을 그린 것이다.

1630년 9월, 7살의 정성공은 어머니를 히라도에 남겨두고 홀로 아버지를 찾아 복건성(福建省)으로 건너간다. 이때 아버지 정지룡은 명의 해방유격으로서 연안지방을 괴롭히던 해구들을 제압하며 조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있었다²⁾. 1644년 명이 망하자 아버지 정지룡과 함께 남명정권의 용무제와 영력제를 섬기며 반청복명운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1645년에는 당왕 용무제로부터 성공이란 이름과 함께 주(朱)씨 성을 하사받았다. 명을 건국한 것이 주원장(朱元璋)이므로, 주씨 성은 황제의 성이다. 따라서 이것을 국성(國姓)이라 하는데, 여기에 존칭을 나타내는 ‘야(爺)’를 덧붙여 ‘국성야(國姓爺)’라 불렀다. 오늘날 서양에서 그를 ‘콕싱아(Coxinga)’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국성야’의 복건 방언인 ‘콕선야(Koksenya)’에서 유래한 것이다³⁾.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고쿠센야갓센(國性爺合戰)』이란 닌교조루리(人形淨瑠璃) 제목도 여기서 따온 것이다.

정성공이 23살이 되는 1646년 어머니가 복건성으로 건너와 16년 만에 모자가 상봉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해 11월 당왕정권이 붕괴되는 와중에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정지룡은 청에 귀순한다. 그렇지만 정성공은 아버지와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그해 12월 스스로 ‘초토대장군 충효백 죄신(招討大將軍忠孝伯罪臣)’이라 칭하며 반청의 깃발을 든다. 1655년에는 계왕(桂王) 영력제로부터 연평왕(延平王)에 책봉된다. ‘연평’이란 칭호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후 대륙에서의 거점을 잃게 되자 새로운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

1) 林田芳雄(2004)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p.3.

2) 한지선(2010) 「명말 정지룡의 해상제패 과정」 『명청사연구』 제34권 명청사학회, pp.99-104.

3) 조너선 클레멘츠, 허강 역(2008) 『해적왕 정성공』 삼우반, pp.207-208.

1662년 2월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점거하고 있던 타이완을 탈환한다. 그러나 석 달 후인 그해 5월, 39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로써 17년간에 걸친 정성공의 반청복명 활동은 종언을 고하지만, 이 타이완 탈환으로 인해 그는 오늘날 타이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타이완에 국립성공대학이나 성공로(成功路)처럼 그의 이름을 넣은 기념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외세로부터 중국을 지킨 인물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성공의 반청복명 활동은 장남 정경(鄭經)을 통해 계승된다. 정경은 1664년 타이완에 동녕왕국(東寧王國)을 세우고, 1673년 삼번(三藩)의 난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동조하여 한때 복건성 일부를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1680년 대륙의 거점을 상실하자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이듬해 1월 죽음을 맞이한다. 내분을 거쳐 그 뒤를 이은 것은 12세의 차남 정극상(鄭克塽)인데, 그는 불과 2년만인 1683년 청에 항복한다. 이로써 정성공에서 시작된 정씨 일가의 대만 통치는 3대 23년만에 종말을 고한다. 그러나 정성공을 비롯한 정씨 일가의 활동은 당시 중국만이 아니고 조선이나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당시 조선에서는 정성공 일가를 『정감록』과 관련지어 정진인으로 간주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성공은 정도령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연평초령의모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연평초령의모도」에 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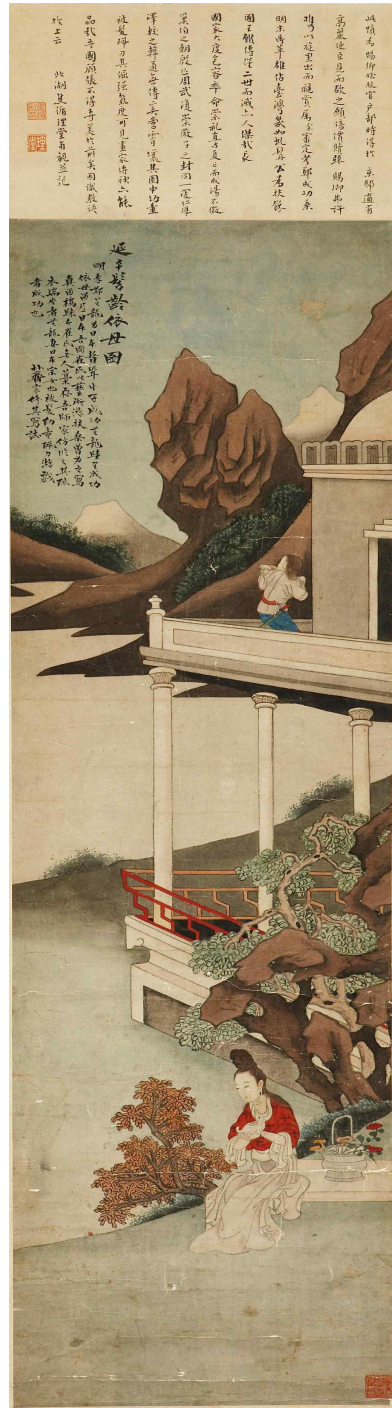
2.1. 그림 해설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그림이 「연평초령의모도」이다. 가로 35.5cm, 세로 146.7cm의 세로로 긴 화폭에 원근법을 사용하여 갈 지 차로 멀어지는 산과 원경에 후지산(富士山)을 배치하고, 전면 오른쪽에는 돛과 발코니가 있는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을 그려 넣었다. 2층 발코니에는 허리에 칼을 찬 6-7세 가량의 정성공이 왼쪽 어깨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왼쪽을 바라보며 등을 돌린 채 앉아 있고, 화면 아래쪽에는 중국식 의상을 입은 어머니 다가와가 손에 역시 강아지

비슷한 동물을 들고 앉아 있다. 그림의 왼쪽 윗부분에는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가 썼다는 「연평초령의모도」란 제화(題畵)가 있고, 그림 상단에는 청의 초순(焦循, 1763-1820)이 지었다는 글이 붙어 있다.

이 그림의 공간적 배경은, 정성공이 7살까지 어머니와 함께 히라도에서 살았으므로 당연히 히라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 히라도는 당시 서양과의 무역으로 번창하던 국제도시였다. 당시 일본, 특히 규슈(九州)의 다이묘(大名)들은 서양무역을 통한 부의 획득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서양배의 입항을 바라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각 다이묘들은 서양인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하면서 서양 무역선을 자기 영지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히라도의 다이묘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도 그런 다이묘 중 하나였다. 1550년 포르투갈의 무역선이 입항하면서 시작된 히라도의 서양무역은 1584년 스페인, 1609년 네덜란드, 1613년 영국 상관이 설치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후 각 상관들이 하나 둘 폐지되면서 히라도의 서양무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1641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네덜란드 상관이 나가사카의 데지마(出島)로 이전하면서 종언을 고했다⁴⁾. 그러나 정성공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1620년대 후반의 히라도는 아직 서양과의 무역으로 번성하던 국제도시였다. 따라서 네덜란드 상관을 비롯하여 서양식 건물도 여러 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정성공이 「연평



4) 箭内健次(1963)「南蛮貿易」『岩波講座 日本歴史9』岩波書店, pp.97-111.

초령의모도」에 나오는 것 같은 서양식 저택에 살았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 복원정비 계획도⁵⁾를 보면 서양인들의 거주지가 제한된 구역에 있었고, 당시 정성공 모자가 이런 저택에 살 수 있을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건에 연루되어 도망치듯 일본을 떠난 정지룡이,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생계대책을 세워놓았을 리 없다. 물론 생활비를 보내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적왕 정성공』을 쓴 조너선 클레멘츠도 정지룡이 일본을 떠난 후 정성공 모자가 “소박한 집”에 살았으며, 그녀에게 남편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⁶⁾. 그런데 「연평초령의모도」에서는 정성공 모자가 호화스러운 서양식 저택에서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성공을 미화하기 위해서겠지만,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자.

또한 히라도는 규슈에 있는 도시이고, 후지산은 혼슈(本州)의 거의 중앙부인 시즈오카현(靜岡縣)과 야마나시현(山梨縣)에 걸쳐 있는 산이다. 따라서 히라도에서는 당연히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그림에는 후지산이 등장한다⁷⁾.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두 사물이 같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그림의 공간적 배경이 일본, 즉 서양식 건물이 등장하지만 서양이나 중국이 아니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2.2. 「연평초령의모도」의 제화

그림 왼쪽 윗부분에 있는 「연평초령의모도」란 제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나라 말엽 정지룡이 일본의 데릴사위가 되어 아들 성공을 낳았다. 지룡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성공은 어머니에 의지하여 일본에 남았다. 우리나라 최씨가 예술로써 부상에 노닐면서 일찍이 이를 위해 그 진영을 모사해 초본을 가지고 돌아왔다. 지금 최씨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 초본이 내 스승 집에 보존되어 있어 이를 보고 그렸다. 붉은 비단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은 지룡의 처인 일본 중녀이다. 더벅머리 어린아이

5) http://hirado-shoukan.jp/modules/history/index.php?content_id=3(검색일 2016.07.15.)

6) 조너선 클레멘츠, 앞의 책, p.92, p.126.

7) 우키요에를 보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후지산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우타가와 히로시게(歌川広重)의 「눈 속의 니혼바시(日本橋雪中)」에도 눈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할 후지산이 원경으로 등장한다.

가 칼을 차고 노는 것은 성공이다. 박제가 수기가 그리고 기록한다.

(明季鄭芝龍爲日本贅壻 生子成功 芝龍歸里 成功依母留居日本 吾國崔氏
以藝術游扶桑曾爲之寫眞留稿歸 今崔氏無人 藁存吾師 家仿臨之 其緋衣端
坐者芝龍妻日本宗女也 被髮幼童珮刀游戲者成功也 朴齊家修其寫誌)

수기(修其)란 박제가의 자(字)이다. 즉 박제가가 그림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함께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그림은 당연히 박제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즉 정민이 이 그림과 제화가 박제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⁸⁾. 그렇지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제화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제화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최씨(吾國崔氏)’는 호생관 최북(崔北, 1712-1786?)을 가리킨다. 최북의 일본행에 관해서는 통신사 명단에 그 이름이 없어 몇몇 이견이 존재했지만, 이후 이원식⁹⁾이나 정은진¹⁰⁾에 의해 그의 일본행이 확인되었다. 최북은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인 1748년 조선통신사의 화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정성공이 죽은 것이 1662년이므로 정성공 사후 86년 후의 일이다. 따라서 제화에 나오는 ‘진영을 모사(寫眞)’했다는 말은 최북이 일본에서 누군가가 그린 「연평초령의모도」와 비슷한 그림을 보고 이를 베껴왔다는 뜻이리라.

그렇다면 최북이 본 ‘진영’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현영은 최북이 정성공 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서 그렸거나, 당시 유행하던 가부키 『고쿠센야갓센』의 무대나 포스터를 보고 그렸을지 모른다고 했다¹¹⁾. 그런데 서양식 건물을 본 적이 없을 최북이 단지 이야기만 듣고 「연평초령의모도」에 등장하는 것 같은 서양식 기둥을 그리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가부키 무대나 포스터를 보고 그렸을 가능성은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정성공을 극화한 지카마쓰의 『고쿠센야갓센』이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8) 정민(2014) 「박제가 「연평초령의모도」의 위작 변증」 『문헌과 해석』 66호, 문헌과 해석사, pp.148-169.

9) 이원식(1991) 『조선통신사』 민음사, pp.201-206.

10) 정은진(2001) 「『蟾窩雜著』와 최북의 새로운 모습」 『문헌과 해석』 16호, 문헌과 해석사, pp.252-259.

11) 김현영(2013) 『통신사, 동아시아를 잇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127-128.

1715년 11월 오사카의 다케모토좌(竹本座)에서 처음 무대에 올린 『고쿠센야갓센』은 무려 17개월간 연속 상연되는 대기록을 세우며 당시 오사카 인구의 80%를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한다¹²⁾. 이에 따라 1716년 중반부터 소위 ‘고쿠센야 붐’이 일어나 ‘고쿠센야’란 이름을 붙인 과자나 장난감, 인형 등이 유행하고, 가부키로도 각색되어 당시 일본의 3대 도시인 교토, 오사카, 에도에서 절찬리에 상연되었다. 또한 그의 일생을 각색한 『고쿠센야갓센(こくせんや合戦)』 같은 그림책(繪本)이나 『게이세이야군단(傾城野群談)』, 『고쿠센야 고젠군단(国姓爺御前軍談)』, 『고쿠센야 민초타이헤이키(国姓爺明朝太平記)』 같은 소설도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¹³⁾. 따라서 이런 책에 나오는 삽화를 보고 그렸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내 스승(吾師)’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김순애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내 스승’을 유득공의 숙부인 유금(柳琴, 柳璉, 1741년-1788년)이라 했고¹⁴⁾, 홍선표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라 했다¹⁵⁾. 그렇지만 둘 다 그렇게 단정한 특별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주장들은 모두 「연평초령의모도」가 박제가의 작품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후술하듯이 「연평초령의모도」가 누군가의 위작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모두 공허한 것이 되므로,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정성공의 어머니를 ‘일본 종녀(日本宗女)’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종녀란 종실의 딸, 즉 황족을 가키는 것이므로 정성공의 어머니 다가와가 황족이라는 말이다. 그녀의 신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매춘부 출신이라는 설에서부터 공주에 버금가는 신분이었다는 다양한 주장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중에는 그녀의 아버지인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18대 조상이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라는 설도 있다¹⁶⁾. 기요모리는 무사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태정대신(太政大臣)이 된 사람으로, 이세헤이시(伊勢平氏) 일족이다. 그리고 이세헤이시는 간무헤이시(桓武平氏)의

12) 寺尾善雄(1986) 『明末の風雲児鄭成功』 東方書店, p.236.

13) 寺尾善雄, 위의 책, pp.241-244.

14) 김순애(1997)(『조정 박제가의 회화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95.)나 유홍준(2002)(『완당평전』 1 학교재, p.81.), 변혜원(2007)(『호생관 최북의 생애와 회화세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59.) 등이 이에 속한다.

15) 홍선표(1991) 『최북의 생애와 의식세계』 『미술사연구』 5호, 미술사연구회, p.22.

16) 조너선 클레멘츠, 앞의 책, p.50.

한 분파이고, 간무헤이시는 50대 간무천황(桓武天皇)의 자손들로 구성된 씨족집단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따르면 다가와는 간무천황의 30대 후손¹⁷⁾, 즉 황족이 되는 것이다. 이 ‘일본 중녀’란 말은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연평초령의모도」를 그린 화가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이처럼 호화스럽게 그림 것도 납득이 된다.

2.3. 「연평초령의모도」의 작가와 제작 시기

이제 「연평초령의모도」의 작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정민은 이 그림과 제화가 박제가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물론 이 그림의 작가에 대한 의문은 정민이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미 이동주가 이 그림을 박제가와 양주팔괴의 막내격인 나병과의 합작품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¹⁸⁾. 그러나 이동주가 자기주장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술사 관련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유홍준, 김현영 등 많은 연구자들이 이 그림을 박제가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박제가가 그리고 썼다는 기록은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근거는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민이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그는 먼저 「연평초령의모도」가 서양 화풍에 익숙하지 않은 최북 같은 조선의 화원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므로 박제가 같은 문인 화가가 모사할 수 있는 수준은 더더욱 아니라고 한 다음, 제화의 글씨도 박제가의 글씨로 보기에는 너무 수준 이하라고 했다. 또한 제화에 나오는 내 스승이 유금이나 박지원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박제가는 박지원이나 유금을 오사(吾師)라 부른 적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제화에서 주장하는 대로 만약 박지원이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다면 박

17) 클레멘츠는 『해적왕 정성공』(p.50.)에서 다가와의 아버지 시치자에몬의 17대 조상이 다이라노 시게모리(平重盛)이고 그 아버지가 기요모리라 했다. 그렇다면 기요모리는 시치자에몬의 18대 조상이 되고 다가와에게는 19대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클레멘츠는 바로 뒤이어 다가와의 19대 조상이 50대 천황인 간무천황이라고도 했다. 즉 기요모리와 간무천황이 동일인이라는 말인데, 이는 아마도 번역자의 오류로 보인다. 간무천황은 시치자에몬으로부터 계산하면 29대 조상에 해당하므로 다가와의 30대 조상이 된다.

18) 이동주는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시공사, 1986, pp.345-346.)에서 “그전부터 박제가의 그림이라는 <초령의모도鬢齡依母圖>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박제가의 그림이냐 아니냐 하고 일제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나는 그 그림에 나양봉의 붓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박제가와는 절친했던 것 같습니다”라 했다.

지원이나 기타 연암 그룹의 누군가가 이 그림에 대한 기록을 남겼을 텐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으며, 이 그림과 글씨는 최북이나 박제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단언하고 있다.

또한 그림 상단에 있는 청의 초순이 지은 글도 앞뒤 연대가 맞지 않고, 그림이 완복의 손에 넘어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작품에 찍힌 초순의 인장이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점 등을 들어 이 글도 초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라 했다. 결국 「연평초령의모도」는 박제가의 그림이 아니고 글씨도 그의 것이 아니고 초순의 글도 가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과 제화는 누가 그리고 쓴 것인가? 이에 대해 정민은 제화에 나오는 ‘우리나라 최씨(吾國崔氏)’라는 말에 주목하여 만약 중국 사람이 이 제화를 박제가의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그가 최북이 일본에 간 사실까지 알았을 리가 없으며 여운을 남겼다. 즉 이 가짜 제화를 쓴 사람이 조선 사람일 거라는 이야기이다. 매우 설득력 있는 추론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림을 그린 사람과 제화를 작성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연평초령의모도」의 제화는 언제 작성된 것인가? 먼저 “지금 최씨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란 부분을 보면 이 제화를 쓴 시기가 적어도 최북이 죽었다고 알려진 1786년 이후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기(修其)’란 자(字)를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종성으로 유배간 1801년 이전이라고 생각된다. 안대회에 의하면 박제가가 종성에 유배간 이후에는 ‘수기’ 대신 ‘뇌옹(類翁)’이란 자를 사용했다고 한다¹⁹⁾. 뇌옹이란 결점이 많은 사람, 몸이 평탄치 않은 사람, 절름발이 노인이란 뜻으로, 유배 이후 본인의 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 의금부에서 고문을 당해 다리를 절게 된 신체적 결함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제화는 1786년부터 1801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민의 말처럼 이것이 가짜라면 이런 추론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다만 박제가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그림과 제화를 쓴 사람이 박제가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 위작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이 「연평초령의모도」가 작성된 시기는 박제가가 죽은 1805년 이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물론 그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알 길이 없다.

이상에서 제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관계 확인에 어려운 부분이 많

19) 안대회(2004) 「박제가의 『竟信堂夾袋』와 북관풍경」 『한국한시연구』 12, 한국한시학회, p.74.

아 정리하기가 매우 난처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항만은 지적해두고 싶다. 첫째 위작은 조선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둘째 제작 시기는 박제가가 세상을 떠난 1805년 이후이고, 아무리 빨라도 최복이 죽은 1786년 이후라는 점이다. 즉 조선 사람이 18세기 말 이후에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다.

3. 정성공과 정도령

3.1. 왜 ‘어린 정성공’인가?

앞 장에서 「연평초령의모도」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연평초령의모도」에 대한 기왕의 관심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림의 화법(畫法)에 대한 관심으로, 주로 미술 관련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²⁰⁾. 또 하나는 ‘정성공’이라는 소재에 대한 관심이다. 예를 들어 김현영은 “<연평초령의모도>의 소재가 17세기 중국대륙에 있어서 명·청교체기에 반청복명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정성공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반청복명의 상징인 정성공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는 것은 북학자 박제가의 마음속에 반청복명의 북벌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²¹⁾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다. 확실히 정성공은 죽을 때까지 반청복명운동을 벌인 사람이므로, ‘정성공’에 주목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정성공이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라는 점에 주의한다면 이야기는

20) 김순애는 “건축양식은 물론 화법도 서양의 원근법과 명암법으로 그려져 있다” (앞의 책, p.96.)고 했고, 유홍준은 “채색과 구도 모두에 청나라풍이 역연하고 태서법까지 보여 과연 북학파의 그림답다는 인상을 준다”(앞의 책, pp.81-82.)고 했다. 변혜원은 “전형적인 일본풍의 산수화”로 “건물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그려졌다”(앞의 책, p.59.)고 했다.

21) 김현영, 앞의 책, p.135. 사실 이 그림을 보고 반청복명을 떠올린 것은 김현영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1998년 8월 17일 유엔대사였던 한표욱씨로부터 이 그림을 기증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박제가가 특별히 이 그림을 모사한 것은 청에 대항했던 정성공을 통해 조선이 청의 압력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자주와 독립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보도자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에서 없어졌고, 이 기증과 관련된 연합뉴스의 기사만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이 그림의 작가가 박제가인지 아닌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관심이 박제가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평초령의모도」란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금 달라진다. 즉 반청복명의 북벌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정성공이란 소재를 선택했다면, ‘어린 정성공’이 아니고 반청복명운동을 가장 왕성하게 벌이던 시기의 모습, 즉 청장년 시기의 정성공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한창 때의 정성공이 아니고 어린 정성공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연평초령의모도」란 제목처럼,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어머니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고 북벌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연평초령의모도」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시기는 이미 북벌을 주장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왜란과 호란으로 망가진 조선을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북벌론과 존주론(尊周論)은 이미 그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즉 조선보다 앞선 청나라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 북벌론의 허구성을 깨닫고 청나라 문물을 배우기 위해 ‘북벌에서 북학으로’ 이미 방향을 바꾼 시기였다²²⁾. 그러므로 이런 시기에 그린 ‘어린 정성공’의 모습에서 반청복명의 북벌을 읽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어린 정성공’을 등장시켰을까? ‘어린 정성공’을 다른 말로 하면 ‘정도령’이 된다²³⁾. 정도령은 『정감록』과 관련해서 조선왕조를 없애고 계룡산 밑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연평초령의모도」의 작가는 세상을 바꿀 구세주인 ‘정도령’을 표현하기 위해 ‘어린 정성공’을 그린 것인가?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정도령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자.

3.2. 정도령은 ‘때를 기다리는 진인’

전술한 것처럼, 정도령은 조선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인물이다. 물론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조선 건국 초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 인물을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인조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인물을 지칭하는 진인(真人)이란 말이 나타나고, 이윽고 그 진인의 성씨가 정씨로 고정되면서 정진인이란 용어가 등

22) 정옥자(2003) 『조선 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pp.122-135, p.153.

23) ‘어린 정성공’을 ‘정도령’과 처음 관련지은 것은 이지훈이다. 그는 《국제신문》 2008년 9월 10일자(「철학자, 바다를 뒤집다 <2-9>정성공, 해금, 정감록」)에서 어린 정성공을 우리말로 옮기면 정도령이라고 한 다음, 정도령과 해도진인(海島真人)설이 조선후기에 결합한 것을 보면 『정감록』이 정성공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철학자로서의 해안이 돋보인다.

장한다. 17세기 후반부터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섬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상진인이란 말도 사용된다²⁴⁾.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정도령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이하 『실록』이라 약칭)에는 1728년 3월 무신란(戊申亂)의 취조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다. 무신란이란 박필현 등의 소론과 격파들이 경종이 독살되었고 영조도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면서 영조와 노론을 제거하려고 일으킨 난을 말한다. 『실록』의 관련 기사를 보기로 하자.

어영 기찰 장교가 의심스런 사람인 출신(出身) 이징관(李徵觀) 및 아노(兒奴) 귀금(貴金)을 성밖에서 잡아 대궐로 올려보냈다. 국문하여 한 차례 형신(刑訊)했으나, 불복하였다. 귀금을 문초하니, 공술하기를, “상전(上典)은 직산(稷山)에 사는데 전립을 쓰고 환도를 차고 적당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적은 변산(邊山) 정도령(鄭都令)과 갈원(葛院) 권진사(權進士) 등으로서 장군(壯軍)을 모집하여 군복을 만들었으며, 박창급(朴昌級)은 그 일족이 매우 많은데 모두 적중에 들었습니다. 이번 15일에 경성을 포위하고자 하여 이른바 정도령이 구만리(九万里) 권생원(權生員) 집에 와 상의하였는데, 능히 둔갑(遁甲)·부작(符作) 등을 잘한다고 합니다.” 하였다.²⁵⁾

변산 정도령이란 변산 노비 도적의 핵심인물인 정팔룡(鄭八龍)을 가리킨다. 변산 노비 도적은 박지원의 『허생전』에 등장하는 바로 그 변산 군도를 말하는 데, 무신난의 중심세력이라서 정팔룡이 12명의 청룡 대장 중 제1장을 차지했다²⁶⁾. 그런 그가 정도령으로 둔갑과 부적에 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도령은 단순한 대장이 아니고 둔갑술이나 부적술 같은 도술을 부리는, 다시 말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룡대장 제6장이었던 경기도 양성의 녹림당 우두머리 정세윤도 정씨였으므로 은근히 자신이 정도령인 것처럼 암시했다고 한다²⁷⁾. 또한 1729년(영조 5) 4월 9일에도 스스로를 정도령이라 칭하며 민심을 선동하던 배수일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었다²⁸⁾. 이렇게 너도나도

24) 진인, 정진인, 해상진인이란 말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된 양상에 대해서는 정응수의 「조선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일본문화학보』 58집, 한국 일본문화학회, 2013)을 참조할 것.

25) 『조선왕조실록』 영조 4년(1728) 3월 16일.

26) 정석중(1994) 「조선후기 이상향 추구경향과 삼봉도」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p.72.

27) 김탁(2009) 『한국의 보물 해인』 북코리아, p.172.

서로 정도령이 되려고 한 것을 보면, 이 시기에 이미 조선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진인으로 정도령이란 존재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도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모두 어른들로서 도령이라 불리기에 는 나이가 많았다. 물론 나이가 어린 정진인도 있었다. 말 그대로 정도령이다. 다음의 기록을 보기로 하자.

(1) 이제 곧 진인이 나올 것이라 금산(金山) 봉계(鳳溪)에 사는 정가(鄭哥)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침에 땅에 떨어져 태어나서 저녁에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장대하여 삼척동자가 되었으므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밤에 그를 데리고 도망을 갔는데, 이것이 재작년의 일이다. 지금은 거처를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²⁹⁾

(2) 노사(老師)가 말하기를, ‘영암(靈巖)에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다만 앞으로 두 해가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세 곳에서 군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충청도이긴만 고을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또 들으니, ‘무신년에 신병(神兵)이 바다를 건너온다.’고 하였으나, 바다 가운데 있는 섬 이름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중에 정가(鄭哥) 성씨를 가진 신인(神人)이 나이는 지금 13살입니다.³⁰⁾

인용문 (1)은 1748년(영조 24) 청주와 문의에서 적발된 궤서 사건의 이지서가 진인에 대해 설명한 말이다. 진인이 재작년에 태어났다고 했으니 이제 겨우 4살인 셈이다. 도령이라 부르기도 어색하다. 그렇지만 진인에 걸맞게 신비한 성장 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곧 세상에 나올 것이라 했다. 즉 아직 세상에 출현한 것은 아니다.

인용문 (2)는 1785년(정조 9) 경상도 하동에서 일어난 반란 음모사건인 ‘이울과 양형’ 사건에서 취조를 받던 홍복영이 한 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진인은 13살인데, 해도에 숨어 있다가 2년 후에 신병을 거느리고 나타난다고 했다.

이상에서 첫째 정진인을 의미하는 정도령이란 말이 『실록』에는 1728년에 처

28) 『조선왕조실록』 영조 5년(1729) 4월 9일.

29) 『조선왕조실록』 영조 24년(1748) 5월 25일.

30) 『조선왕조실록』 영조 9년(1785년) 3월 1일.

음 등장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었고, 둘째 정도령이 처음에는 성인이었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어린 소년, 즉 말 그대로 ‘도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어린 정도령’을 실제 인물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진인이 가지는 상징성, 즉 젊음과 생기와 활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¹⁾.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음을 상징하는 인물이 ‘청년’이 아니고 ‘소년’이라는 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성인’ 정도령은 실제 반란 사건에 참여하여 토벌당하는 현재형의 인물이지만, ‘어린’ 정도령은 실제의 반란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시 말해 곧 다가올 미래에 활약할 사람이다. 즉 무신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 속의 정도령은 실패한다. 그러나 민중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꿀 진인인 정도령이 실패해서는 안 된다. 진인은 언제나 승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³²⁾. 그렇기 때문에 진인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세계에 직접 등장해서는 안 된다. 곧 다가올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승리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진인은 세상을 바꿀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며 승리를 준비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도령은 때를 기다리는 진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³⁾. 그리고 이처럼 때를 기다리는 진인이라면 이미 다 자란 성인보다는 아직 덜 자란, 그래서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소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정진인이 정도령으로 바뀐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3.3. ‘어린 정성공’은 정말 정도령인가?

그럼 「연평초령의모도」를 그린 사람은 정말로 정도령을 암시하기 위해 ‘어린 정성공’을 그린 것인가? 아니, 당시 사람들은 진짜로 정성공을 세상을 구할 정진인이라 생각하고 있었을까? 다시 말해 정성공의 일생에 사람들이 정진인이라 생각할만한, 정도령적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1) 김탁, 앞의 책, 180쪽. 이에 반해 백승중은 정도령을 아직 진인으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미성년이라고 했다(『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2012, p.58.).

32) 조동일(1981)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119.

33) 신동훈은 이처럼 때를 기다리는 진인이야기를 ‘준비 중인 진인’ 이야기라 명명하고, 이 이야기는 아기장수 설화의 변이형인 사라진 아기장수 설화와 정감록 등이 결합하여 성립된 것이라 했다(「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회, 1990, pp.10-13.).

조동일은 일찍이 세상을 구원할 진인의 일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다.

- (가) 집안의 처지는 미천했다.
- (나)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
 - (나)1 사람이 아닌 괴물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 (나)2 잉태된 지 열 석 달만에 태어났다.
- (다) 버림받거나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다.
 - (다)1 사람이 아닌 괴물의 모습이므로 버림받고, 땅에 묻혔다.
 - (다)2 어린 나이에 스스로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었다.
- (라) 먼 곳으로 갔다.
 - (라)1 바다 건너 섬으로 갔다.
 - (라)2 중국으로 갔다.
- (마)神通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 (마)1 신승을 만났다.
 - (마)2 스스로神通하게 되었다.
- (바)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 (사) 어느 때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와 나라를 차지하거나 세상을 구한다.³⁴⁾

그런데 이를 정성공의 일생과 대비해 보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가)의 경우는 둘이 약간 다르다. 정지룡이 명과 일본을 오가는 해적 겸 무역상이었고, 심지어 다가와가 황족이라는 설도 있으므로 출신이 미천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또한 정지룡이 일본에서 채봉일로 먹고 살았다는, 즉 신분이 낮았다는 기록도 존재하기는 한다³⁵⁾. (나)의 비정상적인 출생도 둘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정성공이 당시로서는 흔치 않은 일중 혼혈, 다시 말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해두고 싶다. (다)는 정성공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일본을 탈출했기 때문에 정성공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찾아 홀로 중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것도 (라)2와 흡사하다. (마)의 경우도 정성

34) 조동일(1981)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p.116-117.

35) 조너선 클레멘츠, 앞의 책, p.51.

공이 신통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용무제로부터 황제의 성인 주씨 성을 하사받아 국성(國姓)이 됐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의 경우도 정성공이 한때는 17만 5천의 대군을 거느리고 남경을 함락 직전까지 몰아넣은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의 경우는 정성공이 이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점거하고 있던 타이완을 탈환하여 완료형이 돼버렸지만, 그런 그에게서 조선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가능성을 발견하여, 진인의 이미지를 구했음 수도 있다.

정성공의 일생은 이처럼 진인의 일생과 매우 닮아 있었다. 게다가 그는 조선을 멸망시킬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남쪽에 있는 해도에 근거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진인으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었다. 사실 당시 조선에서는 정성공 일가를 정진인이나 해상진인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즉 정성공의 아들 정경은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정진인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18세기에는 그 아들 정극상을 해상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³⁶⁾. 따라서 조선정부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나 민중들이 정성공을 당시 유행하던 정도령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이상에서 「연평초령의모도」와 정성공, 정도령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연평초령의모도」의 작가가 누구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제화를 작성한 사람이 최북의 일본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제작 시기는 박제가를 사칭한 작품이므로 박제가가 죽은 1805년 이후일 것이다. 그러나 최북이 죽은 1786년 이후라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기는 예언서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다. 물론 앞날을 예언하는 책은 고대로부터 존재했지만 18세기 이후 전성기를 맞이했다. 조선정부는 이 예언서들의 전파를 강력히 금지했지만 그럴수록 예언서는 더 널리 퍼져나갔다. 이 예언서 중에 『정감록』이나 『남사고비결』, 『도선비기』 등이 인기가 있었는데

36) 정응수, 앞의 논문, pp.371-377.

데, 그중에서 정씨 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조선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정감록』이 가장 유명했다. 『정감록』은 18세기 후반 서울을 비롯해 전국으로 유포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발생한 패서나 반역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³⁷⁾ 19세기에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정감록 등의 비기류를 돌려보거나 복사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³⁸⁾.

이처럼 『정감록』이 유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정진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던 정성공이 세상에 불만을 가진 세력, 즉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는 성도 정씨였고 해도에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도 소유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남쪽 섬에서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정진인’, 즉 해상진인인 것이다. 게다가 그 아들 정경과 손자 정극상도 이미 그 이전부터 정진인과 해상진인이라 불리고 있었다. 때문에 정성공이 사람들에게 정진인으로 추앙받았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연평초령의모도」에서 ‘청년’이나 ‘장년’의 정성공이 아니고 ‘소년’ 정성공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일이다. 즉 조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정진인인 정성공을 당시 유행하던 정도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애(1997) 『조정 박제가의 회화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95.
 김탁(2009) 『한국의 보물 해인』 북코리아, p.172.
 김현영(2013) 『통신사, 동아시아를 잇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pp.127-128.
 백승중(2006)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pp.8-9.
 _____(2012) 『정감록 미스터리』 푸른역사, p.58.
 변혜원(2007) 『호생관 최북의 생애와 회화세계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59.
 신동훈(1990)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회, pp.10-13.
 안대회(2004) 「박제가의 『竟信堂夾袋』와 북관풍정」 『한국한시연구』 12, 한국한시학회, p.74.
 유홍준(2002) 『완당평전』 1 학교재, p.81.
 이동주(1986)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 pp.345-346.

37) 백승중(2006) 『한국의 예언문화사』 푸른역사, pp.8-9.

38) 한명기 「19세기 전반 패서사건의 추이와 그 특성」 『국사관논총』 43집, 국사편찬위원회, p.215.

- 이원식(1991) 『조선통신사』 민음사, pp.201-206.
- 이지훈(2008) 「칠학자, 바다를 뒤집다 <2-9>정성공, 해금, 정감록」 《국제신문》 9월 10일
- 정민(2014) 「박제가 「연평초령의모도」의 위작 변증」 『문헌과 해석』 66호, 문헌과 해석사, pp.148-169.
- 정석종(1994) 「조선후기 이상향 추구경향과 삼봉도」 『조선후기의 정치와 사상』 한길사, p.72.
- 정옥자(2003)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pp.122-135, p.153.
- 정은진(2001) 「『蟾窩雜著』와 최북의 새로운 모습」 『문헌과 해석』 16호, 문헌과 해석사, pp.252-259.
- 정응수(2013) 「조선후기의 해상진인과 정경 부자」 『일본문화학보』 5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371-377.
- 조동일(1981) 「진인 출현설의 구비문학적 이해」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pp.116-117.
- 한지선(2010) 「명말 정지용의 해상제패 과정」 『명청사연구』 제34권, 명청사학회, pp.99-104.
- 한명기(1993) 「19세기 전반 패서사건의 추이와 그 특성」 『국사관논총』 43집, 국사편찬위원회, p.215.
- 홍선표(1991) 「최북의 생애와 의식세계」 『미술사연구』 5호, 미술사연구회, p.22.
- 조너선 클레멘츠, 허강 역(2008) 『해적왕 정성공』 삼우반, pp.207-208.
- 寺尾善雄(1986) 『明末の風雲児鄭成功』 東方書店, pp.236.
- 林田芳雄(2004) 『鄭氏台灣史—鄭成功三代の興亡実紀』 汲古書院, p.3.
- 箭内健次(1963) 「南蛮貿易」, 『岩波講座 日本歴史 9』 岩波書店, pp.97-111.

http://hirado-shoukan.jp/modules/history/index.php?content_id=3(검색일 2016.07.15.)

논문 투고 일자 : 2016. 08. 31.
논문 심사 일자 : 2016. 11. 02.
게재 확정 일자 : 2016. 11. 03.

<要旨>

鄭道令になった鄭成功
- 「延平髻齡依母図」を手がかりに-

鄭應洙

本論文は「延平髻齡依母図」を手がかりにして、鄭道令と鄭成功の関係を究明したものである。鄭道令は朝鮮王朝を打倒し新しい国を建設する人物であり、鄭成功は明・清の交替期に反清復明運動を展開した人である。「延平髻齡依母図」は鄭成功が母親と二人で平戸で生活していた少年時代の姿を描いたものであるが、作者不明である。ただ、崔北の日本行を知っていたことから、18世紀後半、朝鮮人が製作した可能性が高い。

この頃、朝鮮では『鄭鑑録』が流行っていた。ところで、鄭成功は名字が鄭であり、南の海にある島(台湾)に根拠地をもっている。しかも、強力な軍隊も所有している。すなわち、「南の島で兵を起こして、朝鮮を滅ぼし新しい国を作る」という鄭真人、海上真人の条件を備えている。だとすると、「延平髻齡依母図」で壮年の鄭成功ではなく、少年鄭成功を描写したのも、鄭成功が救済主の鄭道令であることを暗示するためであろう。

Zhèng Chénggōng, regarded as Jeongdoryeong
-with a focus on *Yeonpyeongchoryeonguimodo*-

Chung, Eung-Soo

The present paper, with a focus on *Yeonpyeongchoryeonguimodo*, discusses the connection between Jeongdoryeong and Zhèng Chénggōng, who campaigned against the Cheong Dynasty and for the Myeong Dynasty. *Yeonpyeongchoryeonguimodo* depicts the early childhood of Zhèng Chénggōng living with his mother in Hirado, and its author is unknown. It is assumed that it was painted by a Korean in the late 18th century, as Choi Book's trip to Japan was recognized in the work.

At that time, *Jeonggamrok* was very popular in the Chosun Dynasty. Zhèng Chénggōng, whose last name happened to be the same as *Jeongdoryeong*, had a base on the island in the south(Taiwan), and also very strong military power. That is, he possessed all the qualifications to be considered as the naval True Man, who was expected to raise troops in the south, destroy the Chosun Dynasty and construct a new Kingdom. Thus, it can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Yeonpyeongchoryeonguimodo* depicted the early childhood, not adulthood, of Zhèng Chénggōng in order to imply the messiah Jeongdoryeong.